

남도의 푸른 바다에서 파닥거리는 생명의 혼 손암 정약전



자산어보(茲山魚譜)

“자산(茲山)은 흑산(黑山)이다.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란 이름이 무서웠다. 집안 사람들의 편지에는 흑산을 빈번히 자산이라 쓰고 있었다. 자(茲)는 흑(黑)자와 같다.”

손암 정약전(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는 이렇게 시작한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 흑산도.

유배지 흑산도에서 손암은 자신의 고절(孤節)한 생애를 ‘무서웠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했다.

한국 해양박물관의 걸작으로 꼽히는 《자산어보》는 정치적 박해의 예기치 않은 산물이자 ‘무서운’ 섬의 파도소리가 빚어낸 자연의 선물이었다. 우리 나라 심해와 근해의 물고기들은 한 변방의 지식인에 의해 그 이름과 생태가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천체우주의 법칙과 심신수양의 도리를 탐구하는데 진을 빼고 있었다. 관념적 형이상학 속에서 끈고한 민중의 삶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조선 후기 실학은 이런 정통 성리학의 관념화 경향에 일침을 놓으며 민중세계의 실상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실학과 가운데 정약전의 작업은 단연 이채로웠다. 다른 실학파들이 농업과 상업에서 민중구제의 방도를 찾았다면, 손암은 어민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며 그들의 세계를 기록했다.

정약전의 정치적 비극은 당시 조선사회에서 금단의 영역이던 천주교와 만나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천주교에 입교해 전교에 힘쓰다 1801년 신유사옥 때 신지도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황서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흑산도로 이배 당한다. 그의 아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여유당전서》를 집필하며 실학을 집대성하고 있을 동안, 손암은 흑산도 어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근해의 수산물을 답사·채집하고 있었다.

손암의 학문방법은 유달랐다. 실학파들이 대부분 서재에 틀어박혀 고금의 문서들을 고증하거나 북경을 드나들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면, 손암은 어촌의 백성들과 함께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흑산도 어족

의 이름과 분포, 습성, 쓰임새 등을 깨우쳐 갔다. 그는 양반의 근엄한 자의식을 훌훌 벗어버리고 어민들에게 배우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자산어보》 서문에서 그의 이런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자산의 해중어족(海中魚族)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적다. (...) 나는 섬사람들을 널리 만나보았다. 그 목적은 어보(魚譜)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사람마다 말이 다르므로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섬 안에 장덕순, 즉 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다. 두문불출하고 손을 거절하면서까지 열심히 고서를 탐독하고 있었다. (...) 성격이 조용하고 정밀해, 대체로 초목과 어조(魚鳥) 가운데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그 성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했다. 나는 드디어 이분을 맞아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의 연구를 계속했다.”

손암은 《자산어보》가 두 가지 점에서 쓸모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치병·이용·이치를 따지고 시인들도 이제까지 미치지 못한 점을 알고 부르게 되기를 바랐다. 실용적 목적과 문학적 효용을 의도한 것이었다. 손암은 이름이 없어 생각할 수 없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말을 따랐지만 수수께끼 같아 해석하기 곤란한 것은 이름을 지어내기도 했다. 후대의 학자들은 동해와 서해에 회유하는 청어와 고등어의 실태를 당시와 비교하는 데 유일한 자료로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자산어보》는 155종에 이르는 흑산도 수산물의 생태를 밝혀 놓았다. 이 책의 서술기법은 정치해 빈틈이 없다. 예컨대, 고등어는 “길이 두 자 정도로 몸이 둥글고 비늘이 매우 잘며, 등이 푸르고 무늬가 있다. 맛은 달콤하며 탁하다. (...) 추자도 여러 섬에서는 5월에 낚시에 걸리기 시작해 7월에 자취를 감추며 8~9월에 다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어에 대해서는 흑산도 주민 창대의 말을 빌려 “영남산 청어는 척추골 수가 74마디고 호남산 청어는 척추골 수가 53마디”라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고독한 유배자의 붓끝에서 남해의 푸른 바다 물고기들은 이름을 얻어 여전히 파닥거리고 있다. **KOVN**